

우리나라 연안과 섬 지역에서 세계 최초 해양생물종 확보

- 2023년에 동남해 해역에서 해양생물자원 825종 2,108점 추가 확보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우리나라 동남해 해역에서 수행한 '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'를 통해 세계 최초로 발견된 해양생물 3종을 포함한 신규자원* 35종과 유용자원** 32종 등 총 825종의 해양생명자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.

- * 미확보종, 미기록종/신종후보 등 확증표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
- ** 건강기능식품, 의약품,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가능한 해양생물자원과 관련 정보 등

이번 조사는 감포(경주), 미조(남해) 등 6개 연안 해역과 남형제섬(부산), 홍도(통영)의 2개 섬 해역에서 실시되었다. 세계 최초로 확보된 종은 파라메손키움류(*Paramesonchium* sp.), 파라스파에로라이무스류(*Parasphaerolaimus* sp.), 타라쏘아라이무스류(*Thalassoalaimus* sp.) 3종으로 학명*은 추후 학계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.

* 학명(scientific name) = 속명(genus name) + 종명(species name)

또한 식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홍합(*Mytilus unguiculatus*), 지중해담치(*M. galloprovincialis*), 툇(*Sargassum fusiforme*)과 축농증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가진 팽생이모자반(*S. horneri*), 한천의 주원료인 우뭇가사리(*Gelidium elegans*) 등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용자원 총 32종도 확보하였다. 이를 포함하여,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자원은 신규자원 35종, 유용자원 32종 등 총 825종이다.

확보된 모든 해양생명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, '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(MBRIS, www.mbris.kr)'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와 실물자원을 기업 및 연구자 등에게 분양·제공할 예정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"해양생명자원조사는 미래 신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기반이 되어주는 만큼, 올해부터는 산업적으로 유용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양, 상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정로 (044-200-5670)
<총괄>	해양수산생명자원과	담당자	연 구 관	박노백 (044-200-5675)
<담당부서>	국립해양생물자원관	책임자	실 장	정현경 (041-950-0840)
	생물분류실	담당자	전임연구원	고영호 (044-950-0849)

참고

세계 최초 확보 3종

